



“중생대 백악기에 3차례 화산 분출…화산재 굳어져 생성”

무등산 주상절리대 형성 과정 밝혀졌다

전남대 교수팀 세계 첫 규명…지구과학 권위지 게재

무등산의 명물인 주상절리대의 형성 과정이 전 세계 과학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소개됐다. 무등산 주상절리대를 세계 지질공원으로 인증하고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첫 발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이창열·허민 전남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지구환경과학부 교수팀은 최근 중생대 백악기 시기 3차례 이상 화산폭발 과정에서 분출된 화산재가 굳어지면서 무등산 주상절리대가 형성됐다는 연구결과를 지구과학 분야 권위지인 '지구, 행

성과 우주'(Earth, Planets and Space) 9월호 온라인판에 게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교수팀은 그동안 국내 보고서를 통해서만 알려졌던 무등산 주상절리대의 형성 원인과 시기, 특징 등을 전 세계 지질과학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자세하게 알렸다.

특히, 이번 연구결과는 무등산 주상절리대가 '무등산 응회암'으로 형성됐다는 점을 전 세계 학계에 알리고 국제적으로 공인받았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



이창열 교수



허민 교수

다.

이 교수팀은 이번 연구 결과에 ▲무등산 주상절리대가 중생대 백악기 후기(8600만~8400만년 전)에 분출된 화산재가 굳어 형성된 '무등산 응회암'의 냉각·수축 과정으로 발달했다는 점 ▲정상

부(전왕봉·지왕봉), 증고도부(입석대·서석대·광석대), 저고도부(신선대 등) 주상절리대가 각각 다른 시기에 형성된 점 ▲해발고도 700m 이상 11km에 걸쳐 분포한다는 점 등을 자세히 소개했다.

이창열 교수는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무등산 주상절리대를 전 세계 과학자들에 공식적으로 소개함으로써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인증하고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첫 발을 뒀다고 생각한다”면서 “무등산 주상절리대의 세계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본격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베이비붐 세대 귀농 돕자” 전남에 ‘서울농장’ 만든다

함평에 지원센터…도, 토지 매입·서울시 리모델링 맡기로

전남도가 은퇴하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는 서울지역 베이비붐세대들의 귀농·귀촌을 지원하는 센터를 함평에 짓기로 하고 실행계획을 수립중이다.

전남도는 21일 “서울시와 상생사업 중 하나로 베이비붐세대의 귀농·귀촌을 돕는 ‘서울농장(가칭)’을 함평군의 한 폐교에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고 밝혔다.

민선 6기 출범 이후 올 초 이낙연 전남지사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이 같은 사업을 제안했으며, 토지 매입은 전남도, 그리고 건물 신축 또는 리모델링비는 서울시가 맡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전남도는 서울농장 주변에 귀농·귀촌 희망자들을 위한 농지를 구입 또는 임대해 적응을 돕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도와 서울시가



의지가 있는 이상 사업 추진에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실행계획 수립을 위해 양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협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복지재단 초대 대표 내정 엄기욱 교수 인사청문회

“논문 자기표절에 반시국선언 광주 기관장에 맞는지 의문”

엄 내정자 “용역결과 보고서, 논문 제출은 관행”

24일 채택여부 결정

광주복지재단 초대 대표이사로 내정된 엄기욱 군산대 교수가 자기 표절 등 연구윤리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위증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인사청문회 결과가 주목된다.

21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광주복지재단 대표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문상필(북구3) 의원은 “정부 발주 연구용역 결과물을 엄 내정자가 학술대회 발표문과 연구논문으로 활용하는 등 저작권 침해와 심각한 표절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엄 내정자는 보건복지부가 2007년 4월 발주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사회복지서비스에 미칠 영향 분석’을 위한 위탁 연구용역에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해 그해 12월10일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문제는 엄 내정자가 용역보고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기 전인 11월22일 제주대에서 열린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노인서비스 공급체계 변화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이 논문은 용역

결과보고서의 10쪽 분량 ‘제언 및 시사점’과 사실상 일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보고서는 이듬해 9월 ‘한국사회복지행정학’ 학술지에 개인 연구논문으로 다시 게재됐다.

문 의원은 “이는 자기표절과 중복게재 등이 명백하며 엄 내정자가 연구실적 등을 위해 학자의 양심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엄 내정자는 “연구용역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학술대회 발표문으로 사용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면서도 “공동연구자의 동의를 받았다. 용역결과 보고서 논문으로 내는 것은 관행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해명도 문 의원이 당시 박모 책임연구원에 직접 확인한 결과 동의를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전진숙(북구 4) 의원 등 대다수 청문위원들은 엄 내정자의 이른바 반(反)시국선언 서명에 대해 광주정신은 물론 인사권자인 윤창현 시장의 철학과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인사청문위원회는 오는 23일 청문결과 보고서를 의결할 뒤 24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채택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황우여 부총리 내일 완도 방문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전남을 방문한다.

황 부총리는 이날 오전 완도 수산시장과 사회복지시설을 둘러본 뒤 완도 청산중을 찾아 ‘자유학기제 연구 운영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교사·학부모·학생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아시아문화원 23일 창립 이사회…문화전당 운영 조직구성 완료

정부 조직(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함께 문화전당 운영을 뒷받침할 아시아문화원이 창립 이사회를 연다.

지난 7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조직 구성에 이어 아시아문화원까지 출범하게 되면 문화전당을 운영하는 조직구성이 마무리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따르면 23일 오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아시아문화원 설립 준비를 위한 이사회가 열린다.

이사회는 언론계, 문화계 인사 10여명으로 구성됐으며, 아시아문화원은 정규직원 62명으로 꾸려져 이달 말께 출범할 예정이다.

이사회는 현재 신임 원장 선임이 장기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이날 임시대표를 뽑은 뒤 아시아문화원 정관과 조직 등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애초 국립아시아문화전당측의 원안에 따르면 아시아문화원은 2본부(기획운영

본부·콘텐츠 운영본부)로 구성되며 산하에 아시아문화연구소와 창·제작센터를 두게 된다.

아시아문화원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운영하는 정부 조직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부터 전당 일부 운영 및 수익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한다. 애초 문화전당 개관 콘텐츠 구축을 담당해온 아시아문화개발원을 확대·개편한 법인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당신의 광장/집을의 광장! U-square

U-square점

YONAMJA

STEAK/ PASTA/ PIZZA/ BEER

STEAK ₩12,500~

PASTA ₩11,900~

PILAF ₩7,900~

PIZZA ₩11,600~

SALAD ₩9,900~

100% Handmade Pizza

☎062)673-7979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광천동) 유·스퀘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F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고객의 입장에서 공감하며
전문성으로 만족스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서명심 변호사입니다.

형사

민사

가사

행정

사기·성범죄·교통사고

이혼·재산분할·위자료

대여금·공사대금·손해배상

보험금 등 각종 금융사건

법률사무소 名家 변호사 서명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법원 버스정류소)
대표전화 062)227-7223 팩스 062)227-7224

빌려주고 못 받은 돈
회수 해 드립니다.

(금융위원회 99-7호)

세일신용정보(주)는 국내 각 금융권을 대표하는
새마을금고연합회, 삼성카드, 산은캐피탈, 한국캐피탈,
전북은행이 주주로 참여한 믿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 차용증,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뚜렷한 대안이 없는 경우

■ 채무자가 타인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

■ 강제집행 등 법 조치를 하고 싶은데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알지 못하는 경우

■ 채무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해야 할 때
- 가압류/소송/집행까지
- 전담 법무사와 Non-stop 서비스

■ 민사채권, 물품대금, 공사대금, 미수금 등

● 채권회수는 타이밍 싸움입니다.

● 결정을 이루는 사이 채무자는 재산이전, 폐업, 소재불명으로 이어집니다.

● 빠른결정만이 소중한 재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 재산조회비용 無

☑ 착수금 無

영업사원 모집

대표전화 : 062) 531-5990 010-2069-5958

세일신용정보(주)